

# '군민주권 지방정부 최우선' 귀농인 안정적 농촌 정착 돕는다

### 민선 9기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군정 인수 절차 돌입

민선 9기 임실군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립할 군수직 인수위원회가 마침내 뜻을 올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1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을 비롯해 송기춘 인수위원장, 신대용 자문위원장, 박현숙 부군수와 인수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민선 9기 임실군정의 힘찬 첫걸음을 축하하고, 새로운 임실의 성공적인 도약을 다짐했다.

행사는 현판식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위원 위촉식, 인수위원장 인사말, 당선인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기간과 분과 구성, 부서별 업무보고 일정 및 향후 운영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인수위는 민선9기 임실군정의 안정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주요 군정 현안과 공약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새로운 군정 운영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농업·농촌, 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행정혁신 등 전 분야에 걸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인수위 조직은 각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높였다.

위원장은 송기춘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장관급)·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부위원장은 이원섭 전 임실군 산업건설국장이 선임됐다.



임실군수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

이밖에도 행정, 농업, 복지, 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해 총 14명의 위원진을 완성했다.

위원회는 △기획·조정, △환경·복지, △산업·건설, △문화·관광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별 전문위원들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선9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현안 사업과 재정 여건, 공약 이행 가능성, 법적·행정적 검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해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군민주권 지방정부'를 군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아 통합과 실용의 행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군정 인수와 임실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원회는 군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는 동시에 새로운 군정 비전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제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각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민선9기 임실군정의 밑그림을 충실하게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득수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업무 인계 절차를 넘어 임실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 출발점"이라며 "군민에 약속드린 공약이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실형 농촌기본소득, 지역화폐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농업 생산 확대, 찾아가는 현장 군수실 운영, 세대통합 돌봄 체계 구축, 권역별 관광·산업 특화 전략 등은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핵심 과제"라며 "임실의 강점과 군민의 지혜를 모아 '사람이 모이는 임실, 희망이 샘솟는 임실'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전충영 기자

### 남원시, 내달 8일까지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신청 접수

남원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8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로서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그리고 남원시로 이주를 준비 중인 귀농 희망자로, 대출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농지 구입, 시설하우스·축사 등 영농시설 설치 등)의 경우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자금(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은

세대 당 최대 7천5백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원금분할상환 방식이다. 최종 대출 금액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금융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 예정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촛불학습' 시즌2 수강생 모집

### 남원시, 평생교육 특강 22일~7월 1일 신청 접수

남원시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2026년 남원시 평생교육 특강 '촛불학습' 시즌2 수강생을 모집한다.

'촛불학습'은 정규 강좌 외 수시 학습 기회를 마련해 시민들의 학습 공백을 촛불처럼 메우고,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민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2는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남원시 평생학습관 분관에서 운영되며, '나의 성장'과 '관계의 성장' 2개 테마로 총 14개 강좌가 마련됐다.

'나의 성장' 분야는 자기개발, 취미 확장, 일상 회복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주요 강좌는 △하루 끝 힐링: 성인미술치료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실천 재테크 △100세 시대, 노후 점검포 국민연금공단 특강 △SI와 함께 만드는 나만의 그림책 △빛나는 너를 위한 파워포인트 △케이팝 댄스. 스타부터 직팬까지 △서플랜

스 입문 △필라테스 내 몸 사용설명서 등이다.

관계의 성장 분야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 △음치여도 괜찮아요: 노래로 알아보는 한국어 △부모성교육: 아내에게 배우는 판단력과 거절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미술치료 △인문학 독서토론 △오븐 없이 만드는 나만의 여름 디저트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우당탕 부엌담합대 등으로 구성됐다.

모집 인원은 과정보로 상이하며 총 155명이다. 수강 신청은 남원시 누리집 '통합예약·신청시스템'을 통해 6월 22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회당 1,000원이며, 수강료 면제 대상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강좌별 재료비와 준비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 행복순창물, 30일까지 블루베리 20% 특별 할인행사

순창군이 재정을 맞은 지역 대표 특산물 블루베리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행복순창물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며, 순창에서 생산된 고품질 블루베리를 정상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현재 행복순창물은 7,500여 명의 회

원을 확보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은 블루베리 본격 출하 시기에 맞춰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크기에 따라 1kg 기준 2만3,000원부터 3만6,000원대까지 다양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시의회, 제9대 마지막 임사회 개최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6월 15일, 제9대 남원시의회 마지막 임사회를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임사회에서는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청소년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남원시의회는 2022년 7월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개원한 제9대 남원시의회는 4년간 8회의 정례회와 22회의 임사회를 열어 890건이 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170

여 건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왔다.

김영태 의장(사진)은 "지난 4년 동안 제9대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진정된 대의기관으로서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던 시민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동료 의원, 공직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난 4년간의 노력과 성과가 다가올 제10대 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명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통부(廣通樞)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킁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투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